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135>

JCCT 2023-7-16

K-콘텐츠 <이태원클라쓰>의 스토리텔링과 상호문화주의

Storytelling of K-content <Itaewon Class> and Interculturalism

김정희*

Jeong Hee Kim*

요약 문화의 혼종화가 이루어진 글로벌 환경에서 보편적인 가치와 공감대 형성이 콘텐츠 흥행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문화와 상호대화적인 관점은 K-컬처 담론에서 유의미한 지점이 있다. 드라마 <이태원클라쓰>는 기존 질서를 뒤엎는 새로운 가치의 승리라는 컨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흥행을 이끌어내었다. 스토리텔링 구조를 분석해보면 이태원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통해 다문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캐릭터를 통해서도 여러 기준에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내포하는 인물들을 재현시키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캐릭터들이 문화 간 대화의 양상을 통해 상호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서사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컨셉은 K 컬처의 오늘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호응받을 만하다. 개별 콘텐츠를 넘어 상호문화주의가 K 컬처 담론으로 확장된다면 오늘날 다문화 환경에서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한류의 방향성을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주요어 : K 컬처, K 콘텐츠, 한류, 스토리텔링, 상호문화주의, <이태원클라쓰>

Abstrac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universal values and empathy are analyzed as important factors in the success of media content. In this context,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ism is meaningful in K-culture discourse. The TV drama <Itaewon Class> presented a storytelling structure in which the existing order was overturned and new values triumphed. This concept has led to great success in the global market. First of all, it shows multiculturalism through the symbolic space of Itaewon. It reproduces people who have various cultural differences in various standards. Characters with diverse values realize intercultural values through cultural dialogue. Such storytelling is evaluated as something that can be widely accept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Interculturalism enables us to seek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Korean Wave.

Key words : K-culture, K-content, Korean wave, Storytelling, Interculturalism, <Itawon Class>

1. K-컬처 담론과 상호문화주의

한류에 관한 여러 담론들에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한류콘텐츠가 과연 한국적인 정체성을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로서 소위 'K'논쟁이라 불

린다[1]. 이러한 논의들에서 의문스러운 점은 '한국적인' 것을 과연 한국의 전통문화로 한정시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문화의 본질적인 속성 자체가 '역동적'이라는 점에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과연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정서로 보는

*정희원, 신문대학교 영상예술학과 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3년 5월 15일, 수정완료일: 2023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1일

Received: May 15, 2023 / Revised: June 5, 2023

Accepted: July 1, 2023

*Corresponding Author: sa-vie@hanmail.net
Dept. of Image Art, SunMoon Univ, Korea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의 정신적인 문화유산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한류가 자연스럽게 담고 있어야 할 한국적인 정체성이 부재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한국적인 정체성을 고유의 정신적인 요소에서만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오늘날 세계적인 킬러 콘텐츠를 생산하는 한국의 영상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한류 콘텐츠가 과연 한국적인 특성을 드러내는가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내용적인 면에서 전통적인 것만이 아닌 오늘날의 사람들이 체감하는 문화를 고려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면에서의 특성, 나아가 콘텐츠 외적으로 산업적인 특성, 전반적인 문화 생태계에 대한 특성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적 혼종화에 의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K'라는 접두어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문화적 혼종화 자체가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두 가지 요소가 양립 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2].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사회의 특수한 문화적 상황이 세계적인 보편성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혼종화되고 글로벌화 된 문화 자체가 오늘날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드러내며 이것이 세계인들에게 보편적 호소력을 가지고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류 초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류 수용과 관련하여 문화적 근접성에 기반한 해석이 유효했지만 바야흐로 K-컬처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이제는 초국가적 근접성이 보다 적절한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언어를 포함하는 문화적, 또는 지리적 친밀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수용자들이 공감할만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한류의 수용을 설명해준다.

본고는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한류 담론에 상호문화주의를 도입하여 논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사회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하고 문화다양성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승화시켜나가고자 하는 철학을 담고 있다. 이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지지하는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 간 소통과 교류를 끊임없이 해나감으로써 보다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해간다[3].

한류 현상을 문화적 민족주의로 국한시켜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를 맞아 민족주의의 종속성과 폐쇄성을

극복해야 한다[4]. 앞서 논의한 대로 문화의 혼종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고 글로벌 환경에서 보편적인 가치와 공감대 형성이 콘텐츠 흥행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는 맥락에서 타문화와 상호대화적인 관점은 K-컬처 담론에서 유의미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한류 콘텐츠의 흥행사례에서 상호문화주의 반영과 영향력을 논의해보는 것은 K-컬처의 현재와 앞으로의 나아가 갈 방향을 숙고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드라마의 컨셉과 흥행 요인 분석

드라마 <이태원클라쓰>는 2017년에서 2018년까지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서 광진 작가가 연재한 웹툰 <이태원 클라쓰>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 웹툰은 누적 독자수가 1천만명 누적 조회수는 3억여 건, 평점은 9.9를 기록했다. 이러한 원작의 화제성과 더불어 원작자가 각본에 직접 참여하면서 대중들의 기대를 모았고 드라마 역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후 OTT 채널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흥행하며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모았다.

이 드라마는 매우 대중적인 복수의 플롯을 다루고 있다. 중졸 전과자인 주인공 새로이가 국내 최대 요식 기업 회장을 적으로 삼아 맞서는 내용이다. 특히 가진 것 없는 사회적 약자가 기존 권력을 부정하고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이루어내는 스토리는 대중들이 선호하는 플롯이다. 인지주의 서사학자 호건의 캐릭터 이론에 따르면 모든 전형적인 스토리에는 사회규범적 캐릭터와 개인주의적 캐릭터의 대립 양상이 드러난다[5]. 이때 개인주의적 캐릭터에 대한 대중들의 선호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와 같이 기존의 사회규범이 부패한 것이라면 대중들은 이를 벗어나 개인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주인공을 열렬히 응원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드라마는 복수의 플롯 자체가 공감의 요소로 작용하기보다는 내면에서 드러나는 주인공의 가치관 실현이 더욱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수용자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인 사회적 반공정성,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투쟁,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매우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6]. <이태원 클라쓰> 역시 동일한 문화적 콘텍스트를 바탕으로 짚고 꿰기있

는 주인공의 영웅담을 그려냄으로써 세계인들의 공감대 형성에 성공하였고 글로벌 흥행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다문화성을 반영하고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을 구성함으로써 글로벌 환경에서 K 콘텐츠의 가능성을 드러내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을 분석해보면 내포되어있는 주제적 의미가 사건의 전개 방식, 캐릭터의 재현을 통해 일관성있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플롯중심의 스토리텔링과는 차별화된 방식이 드러난다. ‘복수’라는 목적의 완수보다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더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념대로 “소신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주인공 캐릭터의 특성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득권 세력인 적대자의 논리에 맞서 주인공 새로이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을 포용하고 상호 이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드러낸다. 스토리텔링에서 주인공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러한 소신에 대한 대가가 없는 사회, 즉 “자유”로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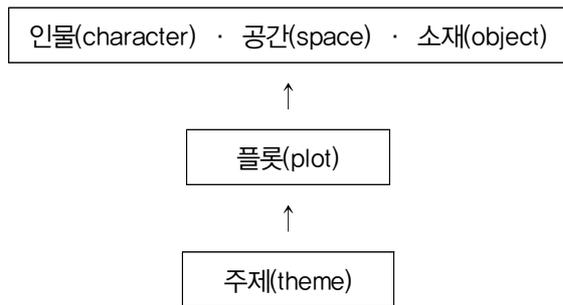


그림 1. 극적 통일성 모델
 Figure 1. Dramatic unity model

영상콘텐츠 기획을 위한 스토리텔링 선행연구를 참조하면 그레마스 의미생성모델을 기반으로 주제가 플롯과 캐릭터 등의 이야기 요소로 극적 통일성을 가지고 표출되는 모델을 위와 같이 상정해볼 수 있다[7][8]. 이야기의 심층에 내재하는 이러한 가치(주제)를 콘텐츠 기획의 바탕이 되는 컨셉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드라마 <이태원클라쓰>의 경우 “이태원 하면 자유!”라는 대사에서 드러나듯 콘텐츠의 컨셉을 공간적 요소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컨셉은 플롯으로, 나아가 캐릭터, 공간, 소재 등의 이야기 요소에

도 통일성있게 반영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을 분석해보고 이야기의 각 층위에서 상호문화적인 관점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논의해보겠다.

III. 서사구조 분석

드라마의 스토리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대가로 고교 자퇴에 전과자가 되어버린 주인공 새로이의 삶의 불균형에서 시작된다. 아버지의 죽음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들에서 ‘부재’의 상황을 겪고 있는 주인공의 최초상황이 마침내 마지막회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로 고백되는 최후상황으로 ‘변형’되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드라마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주인공의 수행은 바로 자신의 원수인 장회장과의 대결과 승리이다.

주인공의 추구는 도입부에서 거대 자본을 가진 강력한 적대자에 맞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출소 후 막노동과 원양어선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단밤’이라는 작은 가게를 오픈하게 된 새로이가 프랜차이즈를 목적으로 요식업계의 정점을 찍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을 때 그의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적대자 장회장은 그가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적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러나 새로이는 “15년짜리” 장기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목표가 확고한 사람의 성장은 무서운 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원조자로서 주변 인물들이 하나씩 합류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에 점차 근접해가는 플롯이 전개된다.

위의 분석이 이 드라마가 가진 플롯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대중적 소통의 기반이 되는 특성이다. 그레마스의 서사이론에서 제시하는 서사성, 즉 최초상황과 최후상황 사이의 계열체적인 변형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행위소 모델에 입각하여 분석할 때 캐릭터 역할 및 구도 역시 명시성을 띠고 있다[9]. 주체와 가치대상 간의 욕망의 축을 중심으로 대중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으며, 원조자와 대립자 간의 능력의 축을 중심으로 갈등구조를 심화시켜나간다. 드라마 초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아버지가 발신자로서 만들어내는 커뮤니케이션의 축은 목표의 성취를 통해 주체를 포함하는 집단인 이태원클라쓰가 수신자로 완결된다.

주인공의 목표는 표면적으로 장가를 쓰러뜨리고 요식업계 1위가 되는 ‘복수’라고 볼 수 있지만,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을 분석해보면 수행에 있어서 목표의 실현 ‘과정’과 ‘방법’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체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대상은 ‘자유’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적대자인 장회장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 ‘약육강식’에 따라 실리를 우선하는 인물이다. 반면 새로이는 시종일관 ‘사람, 신뢰’라는 기업이념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이상주의자”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여러 차례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킴으로써 결국 승리하게 된다. 장회장에 대한 복수라는 확고한 목표를 드러내면서도 “그 사람이랑 똑같이 할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라며 자신만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고 이러한 과정들이 플롯으로 전개되어 나간다.

첫 번째 갈등으로 장회장이 단밤의 새 건물주가 되어 월세 인상과 계약 종료료 요구했을 때, 새로이는 근수를 장가로 돌려보내는 타협안을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경리단길에 새 건물을 구입한다. 그리고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며 ‘공존’을 선택한다. 두 번째 갈등으로 장회장이 증명 홀딩스를 내세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하게 만든 다음 투자금을 철회하여 심각한 위기에 빠트렸을 때, 새로이는 “장사는 신뢰가 바탕”이라며 가맹주들에게 약속한 지원과 일정을 그대로 지원하기 위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금을 마련한다. 세 번째 갈등은 ‘최강포차’라는 경연 프로그램에 우승하기 위해 장가 측에서 단밤의 현이가 트랜스젠더 이슈를 터트렸을 때, 새로이는 무리한 출연보다 현이가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했고 그런 노력으로 현이는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한다. 또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도 김순례 여사의 제안에 “토니 일로 덜하고 싶지 않”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지만 ‘최강포차’ 우승을 조건으로 투자를 약속하여 결국 100억원을 유치한다.

이처럼 서사의 단계별로 장가의 사기와 음모라는 도전을 받으면서 주인공은 기득권의 사회규범과 차별화되는 자신의 가치관을 증명해갔고, 이러한 과정들이 이어져 마침내 가치대상을 획득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다시 말해 이 드라마의 플롯은 사건 구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아니라 캐릭터성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인공 새로이와 주변 인물들이 하나 둘씩

함께 모이면서 ‘이태원클라쓰’를 형성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장회장과 차별되는 새로이의 가치관을 증명해나가는 과정에서 캐릭터 간의 대화의 양상이 드러난다.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 간의 문화 간 대화가 바로 상호문화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IV. 담화구조 분석

그레마스의 의미생성모델에서 담화구조는 공간, 캐릭터, 소재 등의 요소가 주제 의미를 형상화시키는 층위이다. 본 드라마의 경우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공간적 요소가 매우 중요성을 띄고 있다. <이태원클라쓰> 1회에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이 제시된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한가운데 용산, 또 그 안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이태원. 평균 권리금 2억 후반, 서울 3위, 이 작은 거리에 세계가 보인다. 각자의 가치관으로 이 거리를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

주인공이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생각해 낸 이름이 ‘이태원클라쓰(IC)’이다. “이태원하면 자유”가 떠오른다는 이유에서다. 이태원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문화적 다양성을 상징한다. 즉 새로이가 꿈꾸는 다양한 가치관이 인정받는 세상을 말한다. 캐릭터 재현에 있어서도 이러한 맥락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문화 간 대화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적인 상황 설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때 문화차이는 여러 가지 정체성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드러날 수 있다[10]. 이태원이 상징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전 세계 여러 국가와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다문화성이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의 정체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다양성을 상징해볼 수 있다. 아버지를 잃고 중졸 전과자로 밑바닥에서 사업을 시작한 새로이를 비롯하여 주요 등장인물들을 분석해보면 다양한 기준에서 사회적 약자 내지는 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문화성에 대한 하나의 은유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인물들이 시도하는 문화 간 대화는 상호문화주의 관점의 반영으로 간주된다.

오수아 - 고아
장근수 - 서자

조이서 - 소시오패스
최승권 - 전과자
마현이 - 트랜스젠더
토니 - 다문화 자녀

드라마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사회 소수자로서 각자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새로이는 이들의 가치관과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을 지지한다. 트랜스젠더 이슈가 터졌을 때 새로이는 현이에게 “네가 너인 것에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필요없어”라고 말한다. 새로이는 자신의 가치는 남이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거”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이를 실현했다. 또한 주변 인물들에게 사회적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무슨 일든 미리 안 된다고 정해놓지 말라고,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매기지 말라고 조언한다.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갔으며 그것이 ‘이태원클라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의 강력한 원조자인 이서 역시도 “사장님 스타일 세상에서 제일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요”라고 말했다. 그는 소신대로 사람에게 대한 신뢰를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결정을 내리며 주변인들이 함께 성장하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지지한다. 이것이 다시 새로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으며 ‘나’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이끌어내었다.

캐릭터의 내면적 특성에 있어서도 다양성의 반영을 주목해볼 수 있다. 인물이 가진 의식과 내면의 여러 가지 목소리(polyphonies)를 잘 형상화하는 ‘다성적 캐릭터’는 등장인물을 마치 살아있는 인간 존재와 같이 드러낸다[11]. 적대자인 장대희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세상 모든 것의 근원”으로 믿는 기독교 사회규범의 대표자로서 시종일관 한 목소리를 낸다. 반면 새로이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다. 언제나 돌덩이처럼 “끄떡없다”고 말하지만 ‘단밤’을 꿈꾸는 그의 인생은 쓸쓸하고 그립고 외롭고 화가 나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고백한다. 이서 역시 “천사같은 얼굴에 악마같은 성격”을 가진 소시오패스로 아이큐 162의 사회부적격자이다. 명문대 등록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단밤에 매니저로 취직하였다. 다양한 내면적 목소리들은 그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어 인물 간의 문화적

대화를 잘 드러내보이는 데 기여한다.

다성적 캐릭터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은 새로이의 첫사랑 수아이다. 고아인 그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애뜻하여 “나만은 나를 아껴주자”는 생각으로 장가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대학을 졸업했다. “장가 사람”이 된 수아는 은인을 배신할 수도 친구를 등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합리화로 자신을 “이중인격” 같다고 느끼며 여러 가지 내면적 목소리를 내며 갈등하는 인물이다. 중국에는 “제 인생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선택 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사직서를 내고 장가 비리파일을 검찰에 넘기며 내부고발을 한다. 그제야 “마음 편히 진짜 내 삶을 살 거”라고 말한다.

또 하나의 다성적 캐릭터는 장가의 서자 근수이다. 자신을 “실수로 태어난 존재”로 인식하며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약자가 사는 법은 강자에게 기생”하는 것뿐이라 생각했던 근수는 새로이를 만나서 태어나 처음으로 어른을 만난 것 같았다. 아무 것도 욕심을 내지 않던 “호구”였던 그는 이서에 대한 욕심으로 장가에 들어가 후계를 꿈꾸면서 “이기기 위해서 장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등 성격이 변하는 입체적 캐릭터이다. 근원은 장회장에게 “아버지랑 똑같이 만들어놓으셨네요”라고 말했다. 근수 역시 자신의 양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캐릭터로서 중국에는 단밤 식구들에게 사과를 하고 미국으로 떠난다.

이처럼 공간적 요소와 캐릭터 재현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담화층위는 해당 문화의 트렌드가 가장 구체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태원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통해서는 오늘날 글로벌 환경에서의 다문화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캐릭터를 통해서도 여러 기준에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내포하는 인물들을 재현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의 공존과 상호 대화를 지향하고 나아가 기존 질서의 전복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의 승리를 그려냄으로써 콘텐츠의 컨셉인 “자유”를 형상화시켰다. 심층의 주제를 표출해나가기 위한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이 상호문화주의 철학의 근간인 다양한 문화 간의 대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V. 결 론

드라마 <이태원클라쓰>는 기존 질서를 뒤엎는 새로운 가치의 승리라는 컨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흥행을 이끌어내었다. 문화다양성은 오늘날 전 세계적인 문화트렌드의 대표적인 이슈이다. 국가와 민족 차이에 의한 다문화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의 카테고리에서 문화다양성을 구현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그려내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승리를 보여줌으로써 전세계인들의 공감대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스토리 내에서 형상화된 상호문화주의 가치들은 K 컬처의 오늘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라고 본다. 글로벌 수용자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서민들이 가지는 정서와 일상적인 투쟁 등의 메시지라는 점을 앞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맥락을 반영함과 동시에 드라마 <이태원클라쓰>는 상호문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주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하나의 개별 K-콘텐츠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호문화주의의 관점을 도입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K-컬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서 드라마는 수많은 대중들을 수용자로서 전제하며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문화주의의 반영은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 나아가 콘텐츠 내적 의미보다도 한류 담론에 있어서 상호문화주의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알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K 컬처의 수신자인 타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화혼종화에 대해 우려보다는 수용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고자 하는 호기심과 쌍방향적인 대화가 실천된다면 오늘날의 다문화 환경에서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한류의 방향성을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References

[1] Jin, D. Y. *Ten Debates on the Hallyu Mythology*, Hanul, 2022.
 [2] Kim, S. J., Kim, S. A, "The Ethos of Collective Moralism : The Korean Cultural Identity of K-Pop." *Media and Society* 23(3), 2015, pp.5-52.
 [3] A. P. Martine, trans. Jang, H.E. *L'éducation*

Interculturelle, Hanul, 2010.
 [4] Yoon, M. J. "Characteristic and Limit of Nationalism in the Age of Globalization." *HSS21*, 6(3), pp.79-105.
 [5] Hogan, Patrick Colm, *The Mind and Its Stories: Narrative Universals and Human Emo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6] Jin, D. Y. 2022, "Transnational Proximity in the Global Spher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6.
 [7] Kim, J. H, "A Study on the Dramatic Unity of Scenario." *Semiotic Inquiry* 26, 2009, pp. 143-165.
 [8] Kim, J. H, "Storytelling Strategy for Planning of Visual-Image Contents - Focused on Narrative Universal Model." *Journal of Cultural Industry Studies* 10(1), 2010, pp.68-184.
 [9] Hénault, Anne, *Narratologie, Sémiotique générale*, PUF, 1983.
 [10] Kim, J. H, "Case Study of Media Literacy for Intercultural Education." *JCCT*, 9(1), 2023.
 [11] Horton, Andrew, *Writing the Character-Centered Screenpla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